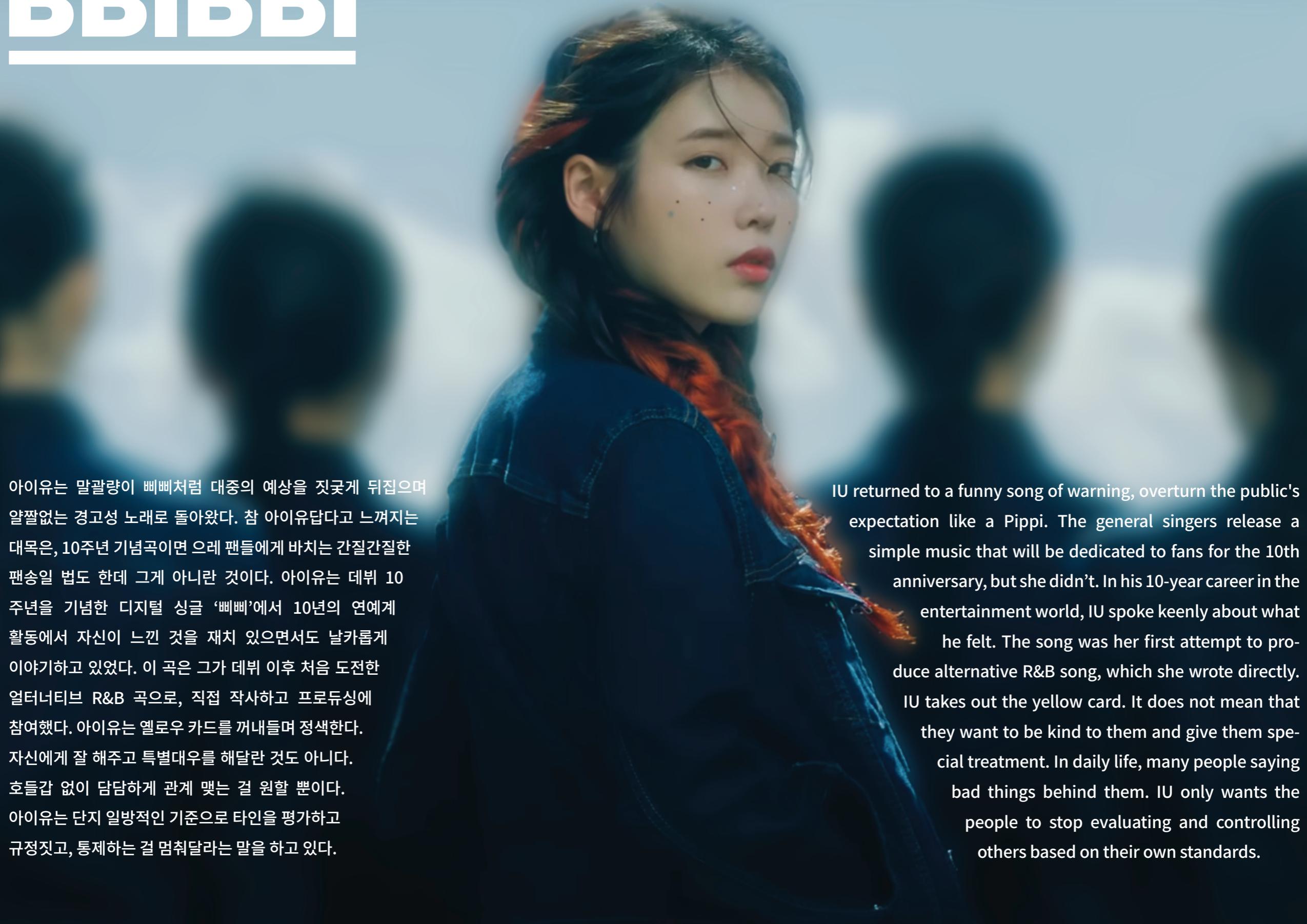


BIBBI



아이유는 말괄량이 빠삐처럼 대중의 예상을 짓궂게 뒤집으며
얄짤없는 경고성 노래로 돌아왔다. 참 아이유답다고 느껴지는
대목은, 10주년 기념곡이면 으레 팬들에게 바치는 간질간질한
팬송일 법도 한데 그게 아니란 것이다. 아이유는 데뷔 10
주년을 기념한 디지털 싱글 ‘빠삐’에서 10년의 연예계
활동에서 자신이 느낀 것을 재치 있으면서도 날카롭게
이야기하고 있었다. 이 곡은 그가 데뷔 이후 처음 도전한
얼터너티브 R&B 곡으로, 직접 작사하고 프로듀싱에
참여했다. 아이유는 옐로우 카드를 꺼내들며 정색한다.
자신에게 잘 해주고 특별대우를 해달란 것도 아니다.
호들갑 없이 담담하게 관계 맷는 걸 원할 뿐이다.
아이유는 단지 일방적인 기준으로 타인을 평가하고
규정짓고, 통제하는 걸 멈춰달라는 말을 하고 있다.

IU returned to a funny song of warning, overturn the public's expectation like a Pippi. The general singers release a simple music that will be dedicated to fans for the 10th anniversary, but she didn't. In his 10-year career in the entertainment world, IU spoke keenly about what he felt. The song was her first attempt to produce alternative R&B song, which she wrote directly. IU takes out the yellow card. It does not mean that they want to be kind to them and give them special treatment. In daily life, many people saying bad things behind them. IU only wants the people to stop evaluating and controlling others based on their own standards.